

SPORTS

2025년 9월 1일 월요일

광주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 우수선수·단체 격려금 450만원 전달

광주시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가 우수선수(5명), 우수단체(2개)에 격려금 450만원을 지급했다.

31일 광주시장예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시장예인국민체육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예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현성 사무처장, 윤진영 발전위원회 추진위원, 이용규 광주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신대현 광주장애인역도연맹 회장, 이병하 광주장애인골볼협회 회장, 윤충걸 광주장애인배구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탁구 김정현(한국전력공사)에게 150만원, 탁구 김성희(광주장애인탁구협회)·역도 장상희(한국전력공사)·육상 정대광(광주장애인육상연맹)·배구 이은숙(광주장애인배구협회) 등 우수선수와 광주장애인배구협회, 광주장애인골볼협회 등 2개 우수단체에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탁구 김정현(42·스포츠등급 2체급)은 2020 도쿄패럴림픽 장애인수영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그는 2024년 장애인 탁구 선수로서의 인생 제2막을 위해 종목을 변경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강 탁구팀이 위치한 광주로 이적했다. 이후 “2025년 8월 기준 세계랭킹 1위”에 빛나는 동체급(스포츠등급-2체급) 탁구 실업팀 박진철(광주시청)과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남자복식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김정현은 이번 발전위원회 국제대회 참가지원금 150만원을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5 도쿄 퓨처 오픈대회”에 생애 첫 탁구 국제대회 참가경비로 활용한다.

광주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는 올해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후원금 1000만원, 장애인학생 태권도 선수 2명 격려금 100만원, 보치아 우수 선수 2명 국제대회 참가비 지원 300만원 등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제3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



지난 29일 화순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3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자 및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 권정우씨(3위), 조원철씨(2위), 이진기씨(1위), 임난희씨(베스트행운상), 한창희 광주광역시골프협회 회장.

동호인들 한 자리서 우정의 ‘나이스 샷’

화순CC서 100명 신페리오 방식...이진기 우승·조원철 준우승 전갑수 시체육회장 “골프 저변 확대·생체 동호회 활성화 노력”

푸른 잔디 위에서 치러진 ‘제3회 광주시체육회 회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지난 29일 화순CC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주시체육회 주최, 광주시골프협회 주관, 광주시 후원으로 열린 이번 골프대회에는 100명의 동호인 골퍼가 참가했다. 대회 내빈으로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 한창희 광주시골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는 골프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골프 시장 활성화 등이 대회 취지인 만큼 숨김 홀을 지정해 핸디캡을 적용하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페리오 방식은 파의 합계가 48이 되도록

12홀의 숨김 홀을 선택하며, 경기가 끝난 뒤 12홀에 해당하는 스코어 합계를 1.5배 하고 코스의 파를 뺀 80%를 핸디캡으로 산정한다. 우승자는 신페리오 방식상 점수가 가장 적은 선수에게 돌아간다.

경기는 25개 조로 나뉜 선수들이 조별로 스프링·썸머·오프 등 3개 코스에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해 순위를 가렸다.

참가 선수들은 맑고 푸른 자연환경을 벗 삼아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골프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일부 선수는 프로 못지않은 실력으로 코스를 공략하기도 했다.

남·여 통합부로 열린 이번 대회 결과, 이진기씨(네트스코어 68.8타)가 신페리오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시상품으로는 트로피와 타이틀리스트 캐디백이 수여됐다.

2위와 3위에는 조원철씨(네트스코어 69.6타)와 권정우씨(네트스코어 70타)가 올랐다. 이들에게는 각각 타이틀리스트 보스턴백과 타이틀리스트 백팩이 전달됐다.

특히 추첨을 통해 선정된 베스트 행운상에는 임난희씨(네트스코어 76타)가 이름을 올렸다. 평소 골프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임씨는 완도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면서도 틈틈이 골프 연습을 멈추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그는 비록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노력의 성과를 보여줬고, 행운상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았다. 임씨에게는 우승과 동일한 타이틀리스트 캐디백이 돌아갔다.

이 밖에도 대회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기념 모자와 파우치, 텀블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물했다.

전갑수 시체육회 회장은 “벌써 3년째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대회가 성대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신 동호인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한창희 광주시골프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면서 “광주에서는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11월에는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이 열린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

광주여대 오예진, 대학실업양궁 ‘금빛 시위’

70m 더블라운드 1위...광주, 시도대항 혼성단체 동 2

광주여대 오예진(사진)이 ‘올림픽제패기념 제42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금빛 시위를 당겼다.

2025 여자양궁 국가대표 오예진은 최근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대학부 70m 더블라운드에서 676점을 쏘 2위 신고은(계명대·675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제43회 대동령기 전국남여양궁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2연패,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2관왕에 올랐던 오예진은 이날 금메달로 2026 여자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예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전에서 광주는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일반부 혼성단체전에 출전한 이진용(남구청)과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16강에서 대전(김법민·임혜진)을 세트 스코어 6-0으로, 8강에서 충북(원종혁·김소희)을 5-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서울(이승산·임하나)에 3-5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우진(조선대)과 오예진이 팀을 이룬 대학부 혼성단체전에서도 16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광주는 8강에서 전남을 5-3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경기도에 2-6으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남자대학부 단체전에 출전한 조선대는 동메달을 합작했다.



한일장신대와 경희대를 각각 5-4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조선대는 인천대에 패해 동메달에 만족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순천대가 은메달을 따냈다.

김가는·김서하·서보은·탁해윤이 팀을 이룬 순천대는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후 8강에서 목원대(6-0), 4강에서 계명대(5-1)를 제치고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강호 한체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은메달에 머물렀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순천FC U-15팀은 최근 영덕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고학년부에서 안동중을 2-0으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순천FC U-15,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 쾌거

영덕 추계 중등축구대회서 고학년부 정상...박형은 최우수선수상

순천FC U-15가 ‘2025 STAY 영덕 추계 U15 축구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다. U-14팀은 준우승을 기록하며 활약했다.

3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순천FC U-15팀은 최근 영덕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고학년부에서 안동중(경북)을 2-0으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순천FC U-15팀의 전국대회 우승은 팀 창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 영덕군축구협회, 영덕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9개 팀(U15 64개, U14 65개)과 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순천FC는 3학년 14명, 2학년 18명 등 총 32명의 선수단이 출전에 수준 높은 기량을 뽐냈다.

고학년부에서 순천FC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강한 정신력을 앞세워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16강전에서 부산 장평SC화랑을 3-1, 8강에서 울산 학생중을 2-1, 준결승에서 부산 기장중SC를 1-0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경북 안동중을 만나 전반 17분 세트피

스로 선제골을 기록한 뒤 후반에 추가골을 성공시켜 2-0으로 완승을 하며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저학년부에서도 값진 성과를 올렸다. 16강에서 경기 파주조이FC를 3-1로 꺾고, 8강에서는 경북 풍기중을 1-0으로 제압했다.

준결승에서는 수원윌드캅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결승 진출했으나, 결승에서 부산 기장중SC에 0-1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 순천FC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개인 시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고학년부에서는 김주영이 골키퍼상(GK상), 이준상이 공격상, 김민성이 15골로 득점상을 수상했다. 박형은은 최우수선수상(MVP)의 영예를 안았다.

저학년부에서는 박은율이 수비상, 김태율이 영플레이어상, 천우주가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지도자 부문에서는 이영수 감독이 고학년부 우승을 이끌고 왕민영 코치와 함께 최우수 지도자상을, 저학년부 준우승을 이끈 박성진 코치와 함께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팀의 성과를 더욱 빛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

온가족사계절스포츠교실 ‘호평’ 시체육회, 펜싱·파크골프 가족 모집

광주시체육회가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중인 ‘2025 온가족사계절스포츠교실’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3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영주실내수영장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실시한 여름철 스포츠교실 수영 프로그램에서 29명의 유·청소년들이 수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여름철 수영 스포츠교실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해 ‘물과 친해지기’, ‘정서 안정을 통한 신체 발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가족 중심의 생활 스포츠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시체육회는 9월 가을철 프로그램으로 펜싱과 파크골프도 운영한다. 펜싱은 초등학교 1~3학년, 파크골프는 만 60~65세 미만의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시체육회가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중인 ‘2025 온가족사계절스포츠교실’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모집한다. 장소는 국제펜싱장(서구)과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등 2곳으로, 각 20명씩 총 10회에 걸쳐 강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9월 2일까지 네이버 폼을 이용해 모집한다.

시체육회는 온가족 사계절 프로그램인 만큼 여름과 가을에 이어 겨울에는 빙상 프로그램을 선사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가을에는 온가족이 톨볼 문

질 수 있는 캠프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가족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온가족사계절스포츠교실은 우리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이용하는 만큼 가족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 외에도 계절별·종목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